

성년 맞은 전주세계소리축제 '폐막'

실내공연 중심 26개 작품성 있는 공연 중점 배치... "위드코로나 대비 예술제 실험 순항"

올해 성년을 맞은 전통과 세계 음악의 대축제인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소리축제)'가 3일 닷새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이날 폐막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소리축제는 '예술제로의 실험'을 표방하며 실내공연 중심으로 26개의 작품성 있는 공연을 중점 배치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객석의 30%만 운영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축제를 치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미디어 공연에 이어 올해는 실내 공연 중심의 대면 공연과 온라인 공연을 접목해 더욱 개방성을 높이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실험을 이어간 결과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150여 회에 육박했던 실내의 공연이 실내 중심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축제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공연장은 차분하면서도 관람 집중도가 높아졌지만, 외부 축제장은 관람객 집중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방역 시설만 운영해 대비를 이뤘다고 조직위는 전했다.

특히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포용하면서 전통과의 긴장이나 융합은 놓치지 않고 긴밀한 직조를 꾀하는 등 전통의 원형과 변형의 조화로운 배열이 눈에 띄었다.

전통의 원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더 깊고 충실해졌으며, 풀라보나 변형을 통한 전통의 확장은 더 과감하고 다채로워졌다.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산조의 밤'은 산조의 백미라고 불리는 가야금 산조의 양대 산맥 지순자·강정숙 명인이 참여해 전통의 미학을 고스란히 전해준 무대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광대의 노래·사슴'은 광과리 명인 4인방을 앞세워 농악이나 사물놀이에 익숙했던 관객들에게 신선한 기대감을 안겼다.

무엇보다 판소리의 품격 있고 노련한 변화로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방수미·박애리·정삼희의 '춘향가'가 돋보였다. 이번 공연은 올해 소리축제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는 평을 받는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세 명창의 연창이 일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얽혀들면서 탄탄한 기본기와 기량을 기반으로 '트리오 판소리'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예고했다.

여기에 '소리 프론티어 시즌2'는 연극적인 요소를 차용한 판소리극이나 재기발랄한 현대극 또는 퍼포먼스화 한 작품 '놀부 FLEX'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아르헨티나에서 날아 온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은 소리축제와 만나 아쟁의 김영길 명인과의 협연을 통해 새로운 레퍼토리를 탄생시켰다.

또 전통연희 '봄바'에 현대적인 사운드와 무용을 입힌 '다크니스 봄바'와 (hip)대중 공연인 '강허탈림, 전주를 만나다', 선우정이는

가야금과 대금, 해금 등 지역 전통음악가들과의 협업으로 소리축제의 색깔을 입히는 데 동참했다.

조직위는 이날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폐막공연 'Fever Time 전북청년열전'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다수의 대중들을 폭발적으로 모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술제로서 공연의 작품성을 높여 축제 브랜딩을 새롭게 하고, 대중축제는 위드 코로나와 공생할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을 짜겠다"고 전했다.

이어 "폭발적 규모와 군집이라는 오래된 미덕과 관심을 뛰어넘었다"며 "20년의 분기점에 서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대비하고 선도해 나갈 것인지 단초를 얻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뉴스

전북대 이준모 교수팀, 전국춤경연대회 1위

전국대회서 충남도지사상 받아... 정세화·정승준 학생도 다른 경연서 수상

전북대학교 이준모 교수(무용학과)팀이 이끄는 현대무용단이 최근 2021 천안흥타령축제 전국춤경연대회에서 대학무용부 최종 1위를 차지해 충남도지사상인 '예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준모 교수 정세화 학생 정승준 학생

천안시와 천안문화재단 주최로 2003년 시작돼 올해 17회를 맞은 천안흥타령축제는 국내의 최고 춤꾼들이 모여 경합을 벌이는 축제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취소됐고, 올해는 자동차극장 방식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열렸다.

대회에서 이 교수팀은 전국 대학 예선을 거친 총 8팀이 겨룬 결선에 올라 '무인승차'란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코로나 팬데믹시대의 안전과 자유를 상징하는 흰색 방호복과 검정 마스크 그리고 백팩을 잘 활용해 작품을 연출, 무대공간의 확장성 이용과 호소력 짙은 음악을 배경으로 고요성과 역동성을 함

께 아우르는 독창적인 작품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와 함께 이준모 교수팀의 정세화(무용학과 3년), 정승준(무용학과 석사과정) 학생도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시니어 파이널 경연에서 각각 심사위원장상과 천안시장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무용협회와 천안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21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KICDC)는 총 32개국 641명이 참가, 예선과 세미파이널, 파이널 순으로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전주한벽문화관, 한문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성료

전주한벽문화관(관장 성영근)은 총 15회차에 걸쳐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한 판의 예술' (이하 규방공예)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규방공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일환으로써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다.

지난 6월 9일 첫 수업을 시작해 매주 수·목 총 30여 명을 대상으로 15주의 수업이 진행, 지난 9월 29~30일 두 차례 진행된 성과발표회를 마지막으로 교육이 마무리됐다.

교육은 기초바느질부터 금박방기, 연잎다포,

사각 바늘겨레, 삼각 베개 등 전통적인 규방 소품부터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소품 제작에 중점을 뒀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사, 수강생 전원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성영근 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전주시민들이 일상에서도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개발을 위해 다각적으로 모색했다"며 "수강생들이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도기념물 지정 위한 학술대회 열려

고고·역사적 가치·발굴상황 등 발표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의 도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가 지난 1일 오후 2시에 고창고인돌박물관(입체영상관)에서 열렸다.

학술대회는 '초기청자를 품다,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차인국(조선문화유산연구원) 책임조사원이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조사과정과 반암리 청자요지의 조사과정과 벽돌가마와 진흙가마, 퇴적구릉, 건물지 등의 발굴상황 등을 발표했다.

국립전주박물관 정삼기 학예연구실장이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와 진안 도토리 청자요지의 비교분석을 통해 반암리 청자요지의 고고·역사적 가치를 이야기 했다.

이어 이종민 교수(충북대학교)의 '한국 초기 청자가마의 현황과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와 한성욱 이사장(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중국 자계(窯系)지역 청자 요장(窯場)과 고창 반암리 청자 요장의 연관성'의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국내 초기 청자 가마터에 대한 의미 있는 담론들이 펼쳐졌다.

앞서 고창군은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과 함



께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의 발굴조사와 문화재 지정을 위해 상호협력 해왔다. 향후 초기청자가마인 벽돌가마의 추가발굴조사와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는

초기청자의 발생, 변화, 생산공정, 관리체계까지 밝힐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평가된다"며 "도 기념물 지정에 이어 유적의 보존·활용을 위해 국가사적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성 기자

순창군, 출향작가·순창 미술인 초대전 개최

순창군이 오는 20일까지 육천골미술관에서 제7회 출향작가 및 순창미술협회 초대전을 갖는다. 지난 1일 시작한 초대전에는 순창미술협회 소속 작가와 출향작가 등 50인이 참여한다.

서양화, 수채화, 서예, 공예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순창의 근간을 두고 뿌리내린 순창미술협회의 활발한 활동도 엿볼 수 있어, 순창군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시회를 주관한 사)한국미술협회 김철수 순창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순창미술협회는 군민들에게 미술문화와의 거리를 좁히고 지역 예술의 발전에도 나름대로 공헌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예술의 경쟁력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예술의 혼이 살아있는 작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노홍균 문화예술과장은 "육천골미술관이 지역의 미술자원을 확대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민부터 미술작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면서 "이번 초대전에도 많은 군민 여러분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문화누리카드 이용 홍보

임실군이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1,320부를 읍·면에 배부했다. 홍보물에는 어르신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안내, 전화주문 상품 안내 등이 담겨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임실군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인원은 2,222명으로,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발급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홈페이지(http://www.mnuri.kr), 문화누리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 발급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임실=진홍영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작업복
단체복

안전화
안전용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명찰, 로고
각종 인쇄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Q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